

<연수 프로그램 내용 소개>

프로그램명	망설여질 때, 그냥 해봐야 하는 것들		
프로그램 개요			
교육단계	예비	참여대상	예비 문화예술교육가
교육기간	10월 22일, 10월 29일	모집인원	회당 15명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18:00 - 21:00	회차/시수	총 2회차 /회당 3시간
교육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참여인력	김태임, 김희진 (2명)
프로그램 내용	본 과정은 경험이 거의 없는 예비 교육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 념적인 설명이 아닌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매력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극적 몰입과 자기표현을 통해 기술 함량을 위한 예술교육과 삶을 성찰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차이를 이해해 보도록 한다. 또한 자신만의 예술가적 강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문화예술교육가로서 앞으로 어떤 가치와 사회적 효용을 지닐 수 있을지 탐색한다.		
회차별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유형	참여인력	수업목표/수업내용
문화예술교육 시식·음미 하기	체험형	김태임 김희진	■ 수업목표 -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자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몸으로 느껴본다. - 선배 예술교육가의 수업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 작업과는 다른 지점을 발견해 본다. - 기술 중심의 예술교육과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 ■ 수업내용 본 강의는 그림책 《다니엘이 시(詩) 만난 날》을 활용하여 과정 중 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여자들은 책 속 그림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두 강사가 보여주는 공연을 함께 관람한 뒤, 참여자들은 직접 극 속의 주인공이 되어 하루를 살아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詩),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을 문화예술교육 이 지닌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탐색한다.

문화예술교육 메인 재료 준비하기	체험형 강의형	김태임 김희진	■ 수업목표 - 나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장점이 문화예술교육가로서 어떤 가능성으로 연결될지 탐색해 본다. -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나의 어떤 문화예술교육가가 되고 싶은지 방향성을 생각해 본다. ■ 수업내용 본 강의는 그림책 《프레드릭》을 활용하여 비경쟁 토론을 진행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쓸모와 예술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시간이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토론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가로서의 '나'를 스스로 설득하고, 동료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생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책 속 '프레드릭'이 겨울을 준비하는 독특한 방식을 살펴보고, 그가 모아둔 햇살·색깔·이야기의 의미를 모듬별로 토론하고 표현한다. 이어 '왜 들쥐들은 프레드릭을 시인이라 불렀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예술과 삶의 관계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눈다.
-------------------------	------------	------------	---

프로그램명	불안할 때, 다시 물어야 할 질문들		
프로그램 개요			
교육단계	신진	참여대상	3년 미만 문화예술교육가
교육기간	10월 21일, 10월 28일	모집인원	회당 10명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 18:00 - 21:00	회차/시수	총 2회차 /회당 3시간
교육장소	동탄북합문화센터	참여인력	김율리아, 서혜윤
프로그램 내용	경력 3년 이하의 신진 문화예술교육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 과정은, 나의 예술적 경험과 신념이 교육 현장에서 현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지역 기반의 자발적 네트워크 모임인 STAN:D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 사례를 통해 지역 안에서 동료 및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생태 안 다양한 이해 관계의 파트너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해 본다. 나아가 현재 성공적으로 브랜딩 된 작곡 수업의 소개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시민에게 공유하고, 시대에 맞게 수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갔는지를 들여다본다.		

회차별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유형	참여인력	수업목표/수업내용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강의형	김율리아	■ 수업목표 -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며, 교육자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재정리한다. - 동료 예술가와 지역 주체들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연대와 네트워크,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리티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과 예술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 수업내용 본 강의는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그 사회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나는 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 이어 '나의 수업은 나를 얼마나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기획, 운영하는 기쁨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전복 꿈의 무용단의 사례를 통해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성과 공동체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 사례를 나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예술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시각을 확장한다.
나의 수업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강의형 체험형	서혜윤	■ 수업목표 -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수업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 10년간 전통적 작곡 교육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반·AI 작곡으로 변화. 실험, 확산한 경험을 공유한다. - 자신만의 교육적 철학과 방법론을 브랜드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 수업내용 본 강의는 작곡가였던 예술가가 전통적 악기 중심 작곡 수업에서 App 기반·AI 작곡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변화 속에서 겪었던 불안과 기회, 그리고 교육자로서 철학을 지켜내며 브랜딩을 형성한 여정을 공유한다. '작곡은 전문가만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순간의 의미를 성찰하며, 그와 함께 겪었던 교육가로서 개입의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나눈다. 앱 SUNO를 활용한 작곡 수업을 경험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나누는 경험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시도해보고 싶은 작은 실험'을 공유한다.

프로그램명	익숙할 때, 의심해봐야 할 것들		
프로그램 개요			
교육단계	중견	참여대상	3년 이상 문화예술교육가
교육기간	10월 20일 ~ 10월 27일	모집인원	회당 10명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18:00-21:00	회차/시수	총 2회차 /회당 3시간
교육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참여인력	허수빈, 임종우
프로그램 내용	경력 3년 이상의 중견 문화예술교육가를 위한 본 과정은 익숙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재와 접근을 탐구하며 창의적 수업 개발 과정을 경험한다. 설치미술작가 슈빔맴의 독창적인 수업 개발 사례를 통해 일상적 사물과 발상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하는 법을 소개한다.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정책 구조와 거버넌스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술교육가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과 방법을 고민한다.		

회차별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유형	참여인력	수업목표/수업내용
뻘한 교육 VS 뻘뻘한 교육	강의형 체험형	허수빈	■ 수업목표 - 예술가의 창의적 프로세스로 개발된 교육이 기존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탐구한다. - 탈영역·탈교육의 창의적 시도를 통해 주는 미래교육의 가능성과 예술가의 시대적 역할을 모색한다. ■ 수업내용 본 강의는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허수빈 작가가 그동안 시도해온 엉뚱하고 기발한 문화예술교육 개발과정을 소개한다. 공기방울을 이용한 수평계 놀이, 등급기 챌린지, 그림자 조각 변형, 야광가면 제작 등 의 사례를 통해 창의교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참여자들은 엉뚱한 수업에 참여하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 낯선 시도를 해보는 경험을 갖는다. 이를 통해 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창의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성찰한다. 이어 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단지를 활용해 교육 개발 실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3가지 교육개발 철학을 공유하며, 창의교육 개발이 지닌 미래적 가치를 나눈다.

정책적 책임과 자리바꿈	강의형	임종우	■ 수업목표 - 지역예술교육가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정보를 습득 한다. - 예술교육가의 정책 참여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지역 예술교육가의 정책 공동체와 공론장을 모색한다. ■ 수업내용 본 강의에서는 특히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예술교육가가 주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의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예술교육가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예술인·행정 주체를 연결하고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정책’이란 단어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나(문화예술교육가)의 삶과 일에서 겪는 문제들, 질문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조금 더 확장하여 예술교육가 중심의 정책 공동체를 구상하며,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 정책팀과 지역 예술인 정책공론장 ‘아더라운드’ 사례를 분석·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	------------	------------	--

프로그램명	사유의 저녁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요			
교육단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대상	위의 프로그램 참여자 중 수요자 대상
교육기간	11월 5일	모집인원	-
운영시간	수요일 18:00-21:00	회차/시수	총 1회차 / 회당 3시간
교육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참여인력	권소정, 김희진
프로그램 내용	수업에 참가한 예비, 신진, 중견 문화예술교육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다. <사유의 저녁>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대화가 있는 자리이다. 동시대에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 간에 위해 '공통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야기 메뉴판>을 제공한다. 두 명의 호스트(문화예술교육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자이자 인터뷰어로서의 역할을 진행한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 동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회차별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유형	참여인력	수업목표/수업내용
사유의 저녁	네트워크 파티	권소정 김희진	■ 수업목표 - 지역 예술가교육가 간의 교류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혼자가 아닌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 - 음식과 쉼, 대화가 있는 자리로서 '먹고, 사유하고, 대화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수업내용 네트워크 파티에 신청 대상자를 보고, <사유의 저녁>의 대화 키워드를 선정한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 메뉴판(소재목)을 만들고, 참가자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메뉴판에 있는 이야기 메뉴를 주문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과정에서 호스트는 참석한 분들이 고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조금 더 함께 사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이어간다. 3시간 동안 먹고, 사유하고, 대화하는 것이 조화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